



사장 인사말

인간의 삶이 자연환경과의 조화 속에서 모색돼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이제 “지속가능한 개발 (SD:Sustainable Development)”은 우리 시대의 명제가 되었으며, 기업에게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 경제적 이익이 기업의 최대 목표로 생각되던 시대는 지나고 기업의 사회성, 환경성,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며 발전시켜야 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은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에겐 시장 퇴출의 위협을, 적응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기업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와 경제적 효율성 증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생태계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기업 기반 구축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K는 그동안 고도 경제성 장의 원동력이자 기간 산업인 에너지 공급분야의 선도기업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환경문제의 심각성 또한 일찍부터 파악, 선진 해외환경동향을 바탕으로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을 90년대 초반부터 수립, 현장에 적용시켜 왔습니다. ’93년 환경영영을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환경방침’을 선언하였고 ‘환경관리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회사의 환경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왔으며, ’03년에는 기존 안전, 보건, 환경 시스템을 통합하여 SHE 경영시스템을 구축, 회사 내 SHE 경영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지구환경변화와 관련해서는 에너지절감 활동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자체 수립한 기후변화협약 대응 전략을 토대로 CO₂ Inventory 구축, 국가 레지스트리 시범사업추진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 왔으며 대체에너지 개발, 저공해 연료유 개발과 같은 국가 청정기술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더불어 제품의 제조에서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석유류 제품의 LCA를 수행하였고 자체 환경인덱스를 개발하여 관리시스템의 선진화를 추구하여 왔습니다.

SK는 더 이상 에너지 기업이라 불리길 원하지 않습니다. 21세기 SK는 지속가능기업을 지향합니다. 즉, SK는 SHE 친화적 경영을 더 이상 ‘비용’이나 ‘지역적 문제’ 보다는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 증진의 기회로 보고 있으며 범 지구적 관점에서 환경, 사회, 경제 등 전 인류가 자연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본 보고서는 SK의 이러한 노력을 가감 없이 투명하게 대외 공개하여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개선의 거울로 삼아 지속 가능한 개발에 책임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SK는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안전, 보건,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4년 4월



SK주식회사 대표이사 신현철